

로마서 묵상 3
(11/19/2020, 목)

찬양: 80(101)(천지에 있는 이름 중)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2-7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이 복음은”(2 절). 2 절 -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에 담아두시고 예언하신 내용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분은 구약성경에 이미 약속되었고, 예언되었고, 선포된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분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씀(1 절)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예언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인 바울도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섭리를 묵상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3 절). 3-4 절 -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삼하 7:12-13 -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 11:1 -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성령이 임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사 11:2 - 그의 위에 여호와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61:1 -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이 땅의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며 하나님 그 자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부활에 대한 강조는, 당시 예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 분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본문의 논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아닌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고 말씀함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분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5 절). 5 절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언급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말은 믿게 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실천하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와 함께, 자신만의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도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부여 받은 사명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축복으로 인사말을 마무리 합니다. **7 절 -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성도가 받아 누리는데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하여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통해 로마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세계 만방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하는 자, 그리고 전함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연합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듯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탕을 둔 이러한 상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나는 은혜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팬데믹 상황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빠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